

# “어려운 친구들 위해 티셔츠 꾸미며 사랑나눔과 실천 배워요”

## 선운초 학생들이 ‘휴머니티’ 제작 참여 아프리카 남수단에 문구류도 기부

선운초 학생들이 아프리카 최빈민국 남수단 어린이들을 위해 티셔츠를 750매를 직접 꾸며 전달했다.

6일 선운초에 따르면 선운초 학생들은 9월 한달 동안 배움과 나눔 프로젝트 ‘휴머니티’에 참여했다. 봉사와 나눔으로 남수단 어린이를 위해 사랑을 실천 고(故) 이태석 신부의 나눔정신을 기억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남수단 어린이를 위해 티셔츠를 직접 꾸며 전달했다.

먼저 고(故) 이태석 신부의 남수단에서의 봉사를 기록한 영상물을 감상했다. 이어 각자 티셔츠를 꾸미고, 각종 문구류를 기부하는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티셔츠 750매와 기부물품은 살레시오회 선교교



을 통해 남수단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부활동에 참여한 선운초 학생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 연필과 크레용이 남수단 친구들에게는 선

이들의 마음들이 이어져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K2·낭가파르바트 원정대 보고서 20년 만에 발간

## 등정루트·과정 등 세밀히 기록 광주·전남 해외원정 역사 담아

지난 2000년과 2005년 광주·전남 지역 산악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K2(8611m) 원정대와 낭가파르바트(8125m) 루팔벽 원정대의 원정 보고서가 20여 년 만에 발간됐다. 두 원정대는 높이에만 매달리던 지역 산악계에 등로주의(登路主義)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행-우리 빛나는 청춘,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두 차례의 히말라야 원정 등반에 대한 세밀한 기록과 함께 1960년대부터 시작된 광주·전남 지역 산악인들의 해외 원정 역사 등을 오롯이 담았다.

지난 2000년 새로운 전년을 맞이해 구성된 K2 원정대는 K2 남남동릉 루트를 한국에서는 최초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다. 두 차례 정상 공격을 모두 성공시켜 단일원정에서 무려 여덟 명의 등정자를 배출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K2 등반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2001년 대한민국 산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날았다. 이러한 성과는 영호남 산악인들이 함께 이뤄낸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컸다.

2005년 낭가파르바트 루팔대장벽 원정대 또한 1970년 이탈리아의 라인홀트 메스너가 초등한 이후 35년간 누구도 올라서지 못했던 최고 난이도의 루팔대장벽 중앙지등 구간 등정에 성공하며 등로주의 등반의 신기원을 이뤄냈다는 평을 받았다.

광주시산악연맹이 주최한 두 원정대는 원정대장(이성원)이 동일하고 대원들도 중복돼 한편의 보고서로 출간했다고 편찬위원회 측은 밝혔다.

편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원정보고서를 합동으로 발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당시



의 원정 계획이나 정보, 사진 등이 담긴 자료들을 수집하고 원정대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1년 여의 작업 끝에 600여 쪽의 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고서는 5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에 고고 및 대학 산악회가 생겨나고 해외 원정대가 꾸러지던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역 산악인들의 히말라야 주요 원정을 재조명했다.

제2장에서는 2000년 한국 K2 원정대와 2005년 낭가파르바트 루팔벽 원정의 개요, 일정, 등반 루트, 등정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원정 기간 대원들이 쓴 일기 원본을 그대로 실어 당시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머지 장에서는 대원들의 지난 원정에 대한 진솔한 회상과 소회, 근황과 함께 그동안 사고 등으로 안타깝게 히말라야의 별이 되어 버린 원정대원 6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담았다.

한편, 편찬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4시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원정대원 및 가족, 지역 산악인 등을 초청해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열어 20년 만에 빛을 본 보고서와 원정의 의미를 되새긴다. 보고서 판매 수익금은 광주·전남 등산사 기록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적십자,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재난 안전교육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가 최근 바람개비꿈터 공립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20명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응급상황 및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실제 화재상황을 재현한 소화기 시뮬레이터 체험과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 위주의 CPR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체험과 참여 위주의 재난안전교육으로 실제 재난을 제압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찾아

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홍성금 조선대 수학과 교수

##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장 선출



조선대학교 홍성금 수학과 교수가 한국여성수리과학회 17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돼 2022년 1월부터 1년 간 회장직을 수행한다.

홍 교수는 수학 연구에 4년간 종사하고 우수한 연구업적을 이룩하는 등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09년과 2021년 호남수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홍 교수는 활발한 학회 활동을 인정받아 학술상을 수상했다. 또한 2009년 미국수학회-대한수학회 공동학술대회와 2014년 서울 세계수학자대회에서 조화해석학 분야 조직위원장을 역임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안녕 우리말 55 UHD 습터	00 빨강 구두 스페셜	15 푸르기 식사교실(재) 45 똑딱구조대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5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재)	00 12 MBC 뉴스 20 검은태양(재)
00 KBS네트워크특선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한국의 인류유산(재) 55 더 나은 삶, 우리 함께 당신을 응원합니다(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4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50 2시 뉴스 외전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팡팡 다이노 45 반짝반짝 달남이		00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00 마법소년 디디 2 15 출동! 유추구조대 2 30 방과 후 초능력	00 KBS 뉴스타임 10 키오캐(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50 한글날 특집 우리말 바로 쓰기 55 기본 좋은 날(재)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스페셜	00 느릿느릿 나무늘보 놀 15 몬스터 탐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액션캠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빨강 구두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30 일일연속극 국가대표 와이프	30 UHD 기후변화 특집 지구의 경고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달리와 감자탕	00 극한대위 야생동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살림하는 남자들(재)	30 당신이 흑하는 사이 2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5 스포츠 하이라이트	00 광주MBC 다큐플러스 건축의 시간 5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10 이수 픽 쌤과 함께(재)	20 통합뉴스룸 ET(재) 50 사랑의 가족(재)	30 TV무비 검은태양 : 테이러이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아기사어 울리와 율리엄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45 그리스 로마 신화 - 올림포스의 별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로보가 폴리	12:10 EBS 부모	19:05 미스터 마구
07:15 두디다쿵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10 명의	19:5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똥똥똥 유치원	15:25 클래스 e	<와일드 아프리카-힐링 대자연, 케냐>
08:30 한글용사 아이야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08:45 꼬마버스 타요	16:00 페퍼 피그	<내가 버려진 바다 4부 나 홀로 리틀 포레스트>
09:00 시몽	16:15 한글용사 아이야(재)	21:50 이것이 야생이다 2 - 시몽의 계절
09:15 봉구야 말해줘3	16:30 똥똥똥 유치원(재)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30 통통가족	16:50 내 친구 문덕이	23:05 한국에 산다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55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知天命이 보는 <b>오늘의 운세</b> 10월 7일(음 9월 2일 戊子) ☎ 010-9790-8237
<p>36년생 물심양면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없겠다. 48년생 재수발원하면 효과를 본다. 60년생 부작용의 원인이 해소 되어야 생산적으로 전환 된다. 72년생 특별히 꼭 집어서 강조해 둘 필요가 있느니라. 84년생 선택 여하가 판국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96년생 안배를 잘 해나간다면 성취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0, 99</p> <p>37년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봉하라. 49년생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61년생 연쇄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오판할 수도 있다. 73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85년생 이룰 수도 없고 저러 수도 없을 것이다. 97년생 방법만 달리한다 해도 많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2, 56</p> <p>38년생 납득하기 힘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리라. 50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62년생 투철한 소명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74년생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 왔던 바가 뜻밖의 판세로 비화 될 수 있다. 86년생 예비분의 확보가 꼭 필요한 판세에 놓여 있다. 98년생 점차 확대 되어가는 길목으로 향한다. 행운의 숫자 : 99, 66</p> <p>39년생 길경의 해가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다. 51년생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가장 절실한 때이다. 63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응하는 것이 낫다. 75년생 지금의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니 마음 놓고 함께하여도 무방하다. 87년생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 해야겠다. 99년생 일단락 지어놓고 보자. 행운의 숫자 : 39, 83</p> <p>40년생 흥사가 뒤따르고 있으니 주의해야 할 때다. 52년생 불안전하다고 여긴다면 일단 실행하면서 체계를 잡아도 된다. 64년생 상대의 속사정은 따로 있다. 76년생 면밀하게 보살피 줘야 위기를 넘기게 된다. 88년생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기대해 볼만하다. 00년생 상호 교류를 위한 통로나 수단이 절실히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42, 74</p> <p>41년생 공금에 왔던 것을 파악하게 되리라. 53년생 분명한 책임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65년생 적극적인 참여가 보람을 가져다 줄 것이다. 77년생 번거롭더라도 그때그때 확인하는 습관이 실수를 줄여 줄 것이다. 89년생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 될 가능성이 높다. 01년생 분위거나 겉모습에 현혹된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7, 79</p>
<p>42년생 불상사가 생길 여지는 충분하다. 54년생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보람을 느끼게 된다. 66년생 주변으로부터 크게 주목 받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른다. 78년생 보다 큰 행보로 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90년생 놓치고 나서 후회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02년생 목적을 가지고 찾아 오는 이가 있었다. 행운의 숫자 : 14, 63</p> <p>43년생 현실적이고 가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방하다. 55년생 끈질기게 밀고 나간다면 분명한 승인이 보인다. 67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좋다. 79년생 공금한 점이 있다면 문해해 봐야 한다. 91년생 생소한 것에 조심히해야 하느니라. 03년생 곧 익숙해질 것이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9, 69</p> <p>32년생 잡으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나라. 44년생 실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용이하다. 56년생 전례를 답습한다면 소모적이다. 68년생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우려국 점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성취하게 된다. 80년생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92년생 효율성을 제고하자. 행운의 숫자 : 12, 96</p> <p>33년생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45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7년생 기존의 틀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69년생 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대국이다. 81년생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오류가 보인다. 93년생 민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놓치겠다. 행운의 숫자 : 29, 90</p> <p>34년생 필요하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 46년생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커다란 지혜임을 알아야 한다. 58년생 일치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다. 70년생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이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82년생 물처럼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자. 94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80</p> <p>35년생 지금 시비를 명백하게 가려두지 않는다면 후환을 초래할 수 있다. 47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조치해야 할 때다. 59년생 구태어 남비를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71년생 완곡하게 유도해 주는 것이 무탈하다. 83년생 오류가 보이니 신속히 바로 잡자. 95년생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허사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4, 76</p>